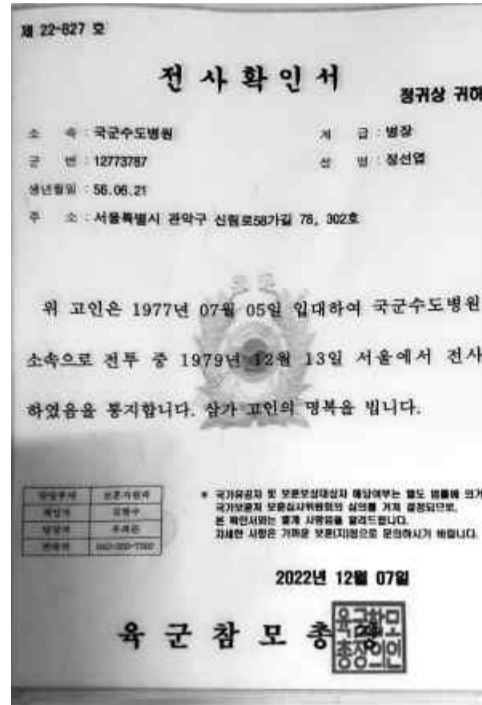


### 12·12 쿠데타 저항하다 숨진 조선대생 정선엽 병장

# 43년 만에 받은 '전사 확인서'

국방부 병커 근무...제대 3개월 앞 12·12 발발  
공수부대원들이 총 빼앗으려하자 맞서다 숨져  
순직→전사 인정...형 훈채씨 "이제야 명예회복"  
조선대, 명예 졸업장 수여 등 추모 사업 진행



"매년 오늘(12일)만 되면 국가를 전복하려는 전두환 반란군에 끝까지 저항하던 동생이 생각납니다"

조선대학교 학생이던 고(故) 정선엽(당시 23세·국방부 헌병대 소속) 병장이 지난 1979년 12·12 사태 당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지하병커 초소에서 초병으로 근무하던 중 무력 진압에 나선 1공수여단의 총탄에 쓰러져간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43년 만에 정 병장의 죽음을 국방부가 정식으로 '전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지난 7일 정 병장의 형 훈채 씨는 국방부로부터 동생의 '전사확인서' (사진)를 받았다.

43년의 시간이 흘러 동생의 죽음이 12·12 군사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것으로 확인돼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된 것이다.

이번 전사확인서는 지난 3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가 정 병장이 '12·12 군사반란' 당시 군 복무를 하면서 국방부 B-2 병커에서 반란군에 대항하다가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도록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 금정면이 고향인 정 병장은 3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정 병장은 어린시절부터 총명한 탓에 바로 위의 형인 훈채씨와 둘이 광주에 나와 유학생활을 했다.

집안이 어려워 훈채씨는 광주상고를 다니다 바로 은행에 취업해 동생을 뒷바라지를 했고, 부모님과 형의 바람을 알던 정 병장은 조대부중, 동신고를 졸업하며 학업에 열중했다.

의협심이 좋고 애국심이 남달랐던 정 병장은 동신고 재학당시부터 '홍사단' 활동도 해왔다. 조선대 전기공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정 병장은 자원 입대를 했고 태권도를 하고 덩치가 좋았던 탓에 서울 용산 국방부를 지키는 헌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대를 석달 앞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13일 새벽 신군부 주요 인물인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지휘하는 공수부대 병력이 국방부를 점령하려고 몰려온 것이다.

13일 새벽 1시40분께 국방부를 점령한 공수부대원들이 정 병장의 엠(M)-16 소총을 빼앗으려 하자 정 병장은 "중대장의 지시 없이는 줄 수 없다"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정 병장은 공수부대원이 쏜 총에 목과 가슴에 4발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1공수여단이 기록한 당일 작전일지에는 "병커 출입구 헌병 근무자 2명 중 1명 체포, 1명은 반항 사격과 함께 병커로 도주 사살됨"이라고 기록돼 있다.

국방부 헌병중대역사록에도 "B-2병커 입구 근무자인 병장 정선엽은 소지하고 있던 개인화기(M-16)를 압수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1공수 진주병력에 의해 사살"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 병장은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기록돼 있었다.

군 인사법상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43년 동안 정 병장은 전두환 세력의 쿠데타군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변경으로 정 병장의 형 훈채 씨는 "이제 서야 동생이 명예가 회복돼 자랑스럽다"면서 "하지만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간 전두환이 12·12뿐 아니라 5·18에 대한 사죄의 한마디도 없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패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12월 12일 마다 전두환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를 누리며 만찬을 벌였지만, 그들의 총과 칼에 죽은 이들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다"고 분노했다.

한편 정 병장의 동문들은 지난 2017년 동신고에 정선엽 병장을 기리는 기념식사를 진행했고, 이어 조선대에서 정 병장의 명예졸업장 수여를 추진하는 등의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총파업 중단 화물연대 "일몰제 연장 지속 요구"

### 지도부 천막 농성 벌이기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16일만에 종료했지만 "일몰제 연장 요구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실시한 전국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파업종료 찬성 61.82%)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본부와 전남본부에서도 각각 조합원들의 63%·56%가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은 종료돼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지도부는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 측은 오는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제 법안이 사라지면 재논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오는 13일 전국 16개 지부 지도부 20여명을 집결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민의힘 당

사 앞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연장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별도의 집회나 파업을 하진 않더라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대선 화물연대 전남본부 조직국장은 "우리의 요구는 화물차 기사들의 무리한 노동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대동맥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영산강 벨트를 지켜라"

### 나주·영암·무안 등 AI 잇단 발병에 전남도 방역 총력전

'영산강 벨트를 지켜라.'

영산강을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순천만 등에 머물렀던 철새들이 서식 환경이 좋은 영산강을 따라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영산강변을 끼고 있는 나주·영암·무안·함평·담·오리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병하고 있다.

이들 4곳이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전국 1위)·닭(전국 5위) 사육지인 전남에서도 손꼽히는 가금류 사육 지역이다.

AI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영산강 벨트'인 이들 지역의 방역 벨트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당국이 이들 지역에 차량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쏟는 것도 이같은 우려에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삼향읍 육용오리 농장과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 삼호읍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가 발생하는 등 전남지역 15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했다.

이날 현재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AI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에서만 6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가장 많았고 무안(3곳), 함평(2곳), 곡성·고흥·장흥·영암(각 1곳씩)도 AI를 비켜가지 못했다. 정밀 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고병원성 확진 농장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에서 살 처분된 닭·오리만 202만 8000마리에 달한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까지 순천만 등 철새 도래지에 머물러 있던 철새들의 이동이 전남의 AI 확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철새들이 서식 환경이 좋은 영산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다보니 '영산강 벨트'에 걸려 있는 나주·영암·무안·함평에서 AI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방역도 '영산강 벨트' 사수에 집중되고 있다. 나주·영암을 비롯, 무안·함평 등 '영산강 벨트'인 4개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설정, 통제 초소를 확대하고 소독차량(72대)을 집중 배치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또 나주·영암의 경우 AI 발생 농장을 주변으로 반경 1km 이내 농가로 제한하던 살처분 범위를 2km까지 늘렸다. 나주 최대 가금류 사육지역인 세지·왕곡면 일대에 대해서는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까지 이뤄지던 이동제한·집중소독 등의 조치를 12km로 늘려 적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담양소방이 지난 10일 담양군 창평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 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 장흥 공장 화재 6세 여아 사망...담양·해남서도 잇단 불

장흥의 공장에서 불이나 6세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등 주말사이 전남 곳곳에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장흥경찰은 "지난 9일 밤 8시 30분께 장흥군 장흥읍의 식품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6세 A양이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고 11일 밝혔다.

불이 난 공장은 2층짜리 건물로, 2층에는 A양의 가족이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A양의 부모는 김장을 하러 타 지역에 갔고, A양의 형제·자매는 각각 학원에 가거나 잠시 밖에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1시 20분께 해남군 송지면의 단독주택에서 LPG교체 작업 중 불이 나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불로 집주인 B(여·32)씨와 가스교체를 하러 온 직원 C(34)씨가 전신에 2도 화상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에는 담양 오일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10분께 발생한 화재는 2시간만인 오전 10시 10분께 진화됐지만, 이 불로 담양군 창평시장 점포 40칸 중 10칸이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셔터가 내려져 있던 가게 안쪽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됐다는 주변 상인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토지 매매 (담양)(장성)

###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

### ■ 임야 : 7,500평

###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 계획관리)
-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 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 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 경매 물건 추천 ◀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삼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 010-6670-9800

## 010-2614-9801